

미국치과의학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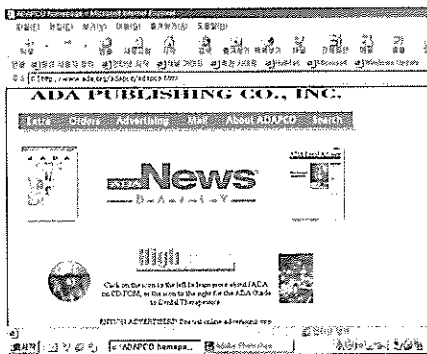


박기철

인디애나대학교 치과대학
공중보건치과연구소장
예방치과학 및 사회치과학 교수

E-mail:kichuelpark@mindspring.com

ADA News



메디케이드 논쟁, 모두가 함께 초점을 맞춰라

미국의 의료계는 현재 65세 미만의 저소득자와 신체 장애자들을 상대로 하는 의료보조제도인 '메디케이드 (Medicaid)'에 대한 확실한 방향설정을 위하여 여러각도에서 토론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치과의사협회도 국회의원들, 치과계의 지도층과 연방정부의 관계부처의 실무자들과 의견을 함께 하였다. 미국치과의사협회 본부에서 8월초 미국전역에서 모여든 정부관계자들과 건강관리 책임자들이 ADA의 Hillenbrand 강당에 모여 지정된 토론에 참석하기 위하여 줄지어 모여들었다. 토론은 메디케이드에 중점을 두었다.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끝없는 문제들로 초래되는 혼란스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모든 절차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메디케이드 대상 아동들의 구강건강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알았을 것이다. 한시간 이상 진행된 제4 토론의제에서 민주당인 오클라호마주의 지역상원의원인 Ben Robinson씨는 메디케이드 제도를 잘 이해하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발표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발언 내용을 경청한 다음 "만일 내가 메디케이드에 변화를 원한다면 모든 주의 주지사들을 만나서 '당신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비법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겠다"고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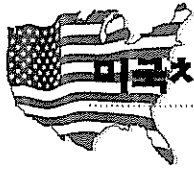
메디케이드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오랜 시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Robinson 상원위원은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법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메디케이드 관련된 문제 해결은 당장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주 지사에게 직접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할 경우 한 사람만을 상대로 모든 주의를 집중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Robinson 상원위원은 100여명의 청중을 상대로 '변화를 향하여, 메디케이드의 향상을 이룩하는 방안 (Achieving Improvement in Medicaid, A.M for Change)'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8월2일과 3일 미국 시카고에 있는 ADA 본부건물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ADA의 APIRDBPGA (Access, Prevention and Interprofessional Relations, Dental Benefit Programs and Government Affairs)가 후원한 이 모임에는 치과의사들과 치과의학 관련 단체직원들, 건강진료제원 관리청 직원, 주의원 및 메디케이드 관리담당관들이 참석하였다.

2년전만 해도 이러한 모임을 가진다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메디케이드와 관련된 30여년 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만연된 불신과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이 너무나 관료주의적이라는 사실이다.

메디케이드와 관련했던 많은 건강관리제공자들이



미국치과의학계정보

낮은 배상을, 이행하지 않는 약속,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청구서 양식, 사전검열 및 사용검열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지난 수십년동안 이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였고 연방정부의 재정적인 자원과 주의 예산을 남용하고 좌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

작년 CHIP(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을 시작했을 때 중앙정부의 관련자들은 메디케이드의 개혁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메디케이드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점들이 미국의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건강보험인 CHIP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6월 네브라스카의 Lake Tahoe에서 이러한 과제들과 연관시켜 HCFA, HRSA 및 국립 모자건강교육 연구소(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in Maternal and Child Health)의 책임자들이 '메디케이드 구강건강진료의 어린이들의 진입로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협력구축'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모임은 메디케이드와 관련을 맺고있는 모든 기구들이 함께 모여 누적된 문제해결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다.

ADA 본부에서 열린 모임에서 HCFA(Health Corporation Financing Administration)의 관리책임자인 Sally Richardson 여사는 Lake Tahoe 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을 소개하였다. "Tahoe에서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노력한 사항은 메디케이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간의 의견대립을 없애려는 사실이었다"라고 말했다. 다음 단계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ADA 모임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각 주와 지역 차원에서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구강진료를 위한 진입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안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ADA 회의 참석자들에게 HRSA(Health Resource Supply Administration)의 관리책임 의

사인 Claude Fox씨는 진입로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연방 정부가 실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구강질환은 미국에서 가장 불충분한 건강진료로 부각되었고 미국에서 발생하는 80%의 치아우식증이 25%의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의 핵심은 참가자들이 실시하는 연수회였다. 분담토론을 시작하기 위해서 참석자들이 Hillenbrand 강당을 떠나, 작은 장소로 옮기기 전에 S. Timothy Rose ADA 회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어떤 그룹을 대표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역할은 답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관을 모두 버리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새로운 의견들을 마련하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라며, 세 번째는 내일 우리 모두가 이곳을 떠날 때는 여러분 모두가 다음 단계로 취해야 할 행동에 적극성을 발휘하는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3시간동안 연수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변화하는 메디케이드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고 모든 주가 서로 다른 환경에 처해 있으므로 해당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에 전체적인 의견을 일치하였다. 이 연수회 참가자들은 재정, 교육 및 의사교환에 관한 여러 가지 논쟁점들을 다루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8월3일에 각 토론 그룹의 대표들이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력확보와 자금조달 - 해당지역의 예산작성자와 예산편성과정을 확인하라 ; 치과의사들에게 법안을 기안하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 ; 증가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봉사 제공자들이 세금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
- 메디케이드 정책과 행정적인 절차 - 가장 비용이 높은 절차들에 대한 사전허가를 제한하라 ; ADA의 코드와 ADA의 양식을 사용하라 ; 환자의 적격검사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 공급자들의 수요와 분포 - 치과대학생들과 치과계 원의사들에게 아주 어린 환자들을 자신감을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하여 더욱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라 ; 이동진료차량과 학교건강관리실을 적절히 활용하라 ; 불충분한 진료혜택을 받는 지역의 치과계원의사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 교육과 통신과 관련된 사항 - 치과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와 교류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과 학교 및 소아과의사들과 긴밀한 통신망을 구축하라 ;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공지사항을 전달하라.
- 메디케이드에 변화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한 동료 - 다른 건강 협회 ; 환자옹호그룹 ; 병원과 응급환자들을 다루는 사람들 ; 메디케이드 등록업무 담당자들과 적극적인 협조방안을 강구하라.

캔사스 치과의사협회 1999년도 전국 어린이 구강건강 행사 표창

Kansas 치과의사회가 금년도 Samuel D. Harris경 연 대회에서 1위로 선정되어 2천불의 상금을 받았고 South Carolina 치과의사회는 2등을 차지하여 1천불의 우수상을 받았다. 이 수상제도는 Harris 박사가 ADA에 회사한 기금을 토대로 하여 매년 어린이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행사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행사 중에서 창의성, 회원의 참여정도와 행사 자체의 간결성 등을 기준으로 구강건강 증진활동의 모범을 선정하여 표창한다.

금년도에 Kansas 치과의사회는 '새 자전거로 방향을 잡아라'라는 슬로건을 걸고 학교와 지역 치과의사회 및 광고매체를 연결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Kansas주 전역을 상대로 그림 그리기 대회에 참석하도록 한 다음, 치아의 교합면 열구와 소와의 봉합제(sealant)에 대한 효과를 재인식시키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Kansas 지역에서 11개 단체가 참석하였으며 976명의 학교 양호교사와 2만5천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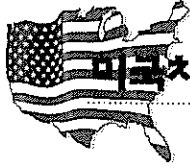
1999년 9월 6일에 발간한 ADA News에서는 미국 의회에 상정된 환자보호법(안)과 오는 10월 13일부터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개최되는 136차 ADA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추임하게될 차기회장Richard F. Mascola씨에 대한 전체적인 안적사항과 면담내용을 표지 기사로 다루고 있다. 4쪽에 달하는 기사를 다루고 있으며 나머지 기사는 다음에 발간되는 ADA News에 연속해서 다룬다고 하였다. 또한 차기회장으로 입후보한 Robert M. Anderson 씨와 Charles L. Siroky씨의 정견에 대한 내용과 제일 부회장으로 출마한 J. Kendal Dillehay 씨와 제2부회장으로 출마한 Ronald B. Gross 씨와 대의원 의장으로 출마를 선언한 James T. Fanno 씨의 경력과 아울러 출마하게된 각자의 의견을 거의 3쪽으로 나눈 기사를 다루고 있다.

환자보호법(안)에 대하여 ADA와 AMA 및 기타 관여기구들이 깊은 관심을 표명

ADA는 AMA와 기타 관련된 120여 기관들과 긴밀한 접촉을 하면서 환자를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 ADA회장 S. Timothy Rose씨와 ADA 실행사무 총장인 John S. Zapp씨와 공동으로 서명한 ADA의 공적인 입장을 밝히는 내용의 전문을 8월 20일 ADA의 근본을 마련하는 지도자들과 각 주의 치과의사회장들에게 발송하였다. 치과의사로 국회에 진출한 공화당의 Charlie Norwood (조지아주)와 민주당의 John Dingell (미시간주) 하원위원들이 자기들이 속해있는 당의 차원을 초월하여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환자보호법(안)을 마련하였다고 강조하면서 ADA의 모든 회원들이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자기들이 속해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에스트로젠 치료는 치주질환에도 효과를 나타낸다

갱년기의 문제점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Estrogen을 복용하는 여성들의 경우 구강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치주학회지 9월호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에스트로젠 복용은 치주질환의 진행을



자연시킨다고 했다.

“골다공증의 위기에 처한 여성들이 에스트로젠을 복용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Nebraska 대학병원에 소재한 치과대학 교수이면서 이 연구를 책임졌던 치과 의사 Richard Reinhardt 씨는 말했다. 홀몬을 복용하는 치료법은 효과가 있는 반면에 특정한 위험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미국 치주학회측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에스트로젠을 복용하기 원하는 여성들은 자기들의 일반의사나 치과의사들과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라고 미국 치주학회 회장인 Robert Schoor씨는 강조하고 있다.

9월20일자 ADA New(30권7호)는 1999년 10월9일부터 13일까지 Hawaii의 Honolulu에서 개최되는 대의원총회와 California 치과의사협회가 미연방상공협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를 상대로 비영리 목적의 치과의원의 광고와 관련시켜, 고등법원에 제소된 내용을 표제기사로 다루고 있다. 지난 호에 이어 ADA의 차기회장인 Mascola 씨의 면담내용의 제2부를 4장의 원색 사진과 함께 26쪽부터 32쪽까지 다루었고, ADA회기동안에 발표될 레이블 클리닉 제목과 발표자들의 명단을 36쪽부터 40쪽까지 기재하였다.

음용수 불소화를 통한 치료비용을 절감

미국 중앙질병관리 및 예방 연구소 (CDCP;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가 9월3일자로 발간한 CDCP MMWR(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에 의하면 불소를 첨가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어린이들의 치과진료를 위한 의료비가 불소를 첨가한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어린이들보다 2배 이상이며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훨씬 높다. 음용수에 불소를 첨가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치과치료를 위한 의료비가 미화 1백40만불이나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1995년 7월부터 1996년 6월까지 일년동안에 걸쳐 미국의 Louisiana 주에 거

주하는 1세부터 5세에 이르는 39,000명의 어린이들을 상대로 매디케이드(Medicaid) 수혜자들이 우식치, 예방 진료 및 불소의 국소 도포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상황을 조사 분석한 것이다.

치과의사들의 복지

치과의사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세계 각처에서 모여들어 지난 9월19일부터 21일까지 ADA본관에서 제8차 연례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금년도의 주제는 치과의사들과 치과의사의 배우자들, 치과의료인들 및 치과대학생들을 위하여 동료인 입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술이나 마약에 중독된 동료치과의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작된 여러 가지 상호회의의 내용을 소개하고 기대효과와 결과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상호연락(InTouch)'이라는 계가잡지를 발행하여 서로의 관심사들을 알리고 실패와 성공사례발표를 통하여 상호회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특히 금년도의 치과의사들의 복지와 관련된 주제로서 참석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끈 내용은 '성 중독(Sex Addiction)'의 사회적인 문제점들이었고, 성 중독이 치과의료인들의 큰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등장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졸업 후 연수를 받는 치과의사들의 수 증가

치과대학의 학부학생수가 약간 감소되었던 1980년 후반기에는 치대 졸업 후 연수를 받는 학생들의 수도 약간 감소하였으나 1994년부터 치대 졸업 후의 연수생(AEP; Advanced Education Program)들의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1994년부터 1997년 사이에 AEP에서 공부를 계속하겠다는 학생들의 수가 약 5%증가되었다.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집계된 통계에 의하면 AEP에 속한 치과의사들의 수가 4,766명이다. AEP에 속한 치과의사들 중 68%는 전문치과의사가 되기 위한 특수 교육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32%는 일반치과교육 프로그램에 속해 있고 연수기간은 1년에서부터 5년까지로 전문 치과의사교육의 선택분야에 따라 다르다.

또한 AEP의 연수과정은 학교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졸업 후 연수과정은 치과대학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절반도 되지 않고 대부분이 종합병원이나 치과진료실과 같이 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AEP 연수자들의 수와 연수과정의 차이를 종합한다면 전체의 50.5%는 치과대학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관성을 맺고 있으며, 나머지 49.5%는 치과대학과 아무런 연관성을 가지지 않은 독립된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졸업 후 연수를 받는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AEP를 택한 이유는? :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계속해서 연수를 받는다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치과대학을 입학하는 날부터 졸업한 다음 전문치과의료인이 되겠다고 마음을 결정한 학생도 있지만 AEP를 통해서 전문치과의사로서 임상에 필요한 특수한 기술을 연마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학생들의 경우도 있다. 모든 학생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 - 특히 가족과 재정에 관한 - 에 세심한 분석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미국의 경우 치과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많은 빚을 지고 졸업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치과대학 졸업생들은 개원 치과의사가 되기 전에 임상경험을 가진다는 일이 자신감을 가지고 환자들을 다루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AEP를 택할 경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임상경험을 얻게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족 문제는?: 어디에 있는 AEP에서 연수를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등장한다. 가정을 가진 초년병 치과의사들의 경우, 남편이나 아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지가 AEP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간의 상황판단을 통한 최종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때에 따라서는 학비조달로 인하여 진 빚을 언제,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에 따라 AEP를 선택해야 한다. AEP에서 지불하는 장학금과 빚 갚을 돈에 대한 전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선택조건을 심사숙고하라: AEP를 결정하기 전에 모든 여건을 분석 검토하는 일이 중요하다. 학부 3학년일

때 4학년인 일년 선배들과 자주 만나서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체적인 AEP의 성격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AEP과정을 마친 다음 치과개원을 위한 재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치과의료사업 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과병원을 열기 위한 용자를 받기 위하여 은행을 선택할 경우, 어느 은행의 누구와 상담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일도 중요하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과 진료 실을 마련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AEP를 선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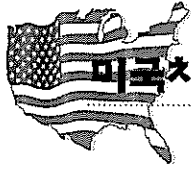
1999년 10월 4일자로 발간된 ADA News(30권18호)는 현재 미국에서 차기대통령의 지명전과 여러 지역의 시장 및 주지사들의 선거를 한달 가량 앞두고 열띤 정치 공방전을 벌리고 있는 환자보호법안에 대한 의견대립에 대하여 표제기사로 다루었고 ADA 연차총회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대부분의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적당한 체중감소는 건강과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준다

미국 공중보건협회지 9월 호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알맞은 체중감소를 위한 조심스런 노력은 건강과 경제에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한다. 비만증인 사람이 현재 체중의 10%만을 줄인다 하면 생명을 2개월 내지 6개월 연장하고, 고혈압환자인 경우에는 1.2년 내지 2.9년, 콜레스테롤 양이 높은 환자인 경우 0.3 내지 0.8년, 2형 당뇨병환자인 경우 0.5 내지 1.7년의 생명을 연장한다고 했다. 또한 심장병으로 고생을 하는 환자 1,000명 중 12 내지 38명을 구제하고, 뇌졸중인 환자가 될 가능성이 사람 1,000명 중 1 내지 13명을 구제한다고 했다. 또한 경제적인 면에서 분석한다면 비만증과 연관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전체 의료비용 중 2,200 내지 5,300불을 감소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일리노이주 처음으로 치과진료 환자보호법 마련

일리노이주 의회는 지난 4년동안 치과계와 보험회사 및 경영관리회사 간의 치열한 공방전을 벌려오던 치과진료 환자보호법안을 지난 7월29일 통과시켰다. 일리노이주의 George Ryan 주지사가 의회를 통과한 새로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미국에서 처음으로 치과의료경영 관리회사에 가입한 환자들의 치과진료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보호법(SB 721)을 시행하게 되었다. 일리노이주 치과 의사협회의 공식대변인은 “새로 공포된 이 법은 환자, 보험회사 및 의료경영관리회사가 치과환자들의 영리를 보호함으로써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했다. 새로 공포된 환자보호법의 골자는 일리노이주 보험과에 치과의료지문기구를 설치하고, 환자의 권리와 명세서발행 의무를 설정했고, 심사기준의 작성과 활용방안을 모색하며, 특혜진료를 실시하려면 25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단체이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SB 721은 치과의료와 관련된 특수한 구강건강 법률이다. 이러한 구강건강 법률이 통과된 후 1개월 지난 다음에야 일반 의료에 대한 환자보호법이 일리노이주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구강건강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모든 환자들이 치과 의사들의 자격과 면허증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으며 치과 의료보험이나 의료 경영회사를 선정할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를 환자들이 알고자 할 경우, 해당회사들은 환자들이 원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우리 환자들을 위하여” 슬로건을 걸고
(Rallying for “our patients”)**

미국의 신문이나 방송들은 계속해서 환자보호법의 국회통과를 위해서 미국의 정치 본고장인 Washington, D. C.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치열한 정치적 공방전을 보도하고 있다. ADA 회장인 S. Timothy Rose씨도 공화당 (조지아주) 국회의원이며 치과 의사인 Charlie Norwood 씨와 민주당(미시간주) 국회의원이며 치과 의사인 John Dingell씨가 공동으로 입법한 환자보호법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전적으로 지지했다. ‘놀우드-딩겔 법안 (Norwood-Dingell bills: HR2723)’이라는 명칭을 가진 이 법안을 10월4일 미국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한다. 이 법안은 의료보험회사와 의료경영회사들의 심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으나 미국의사협회 회장인 Tom Reardon 씨도 놀우드-딩겔 법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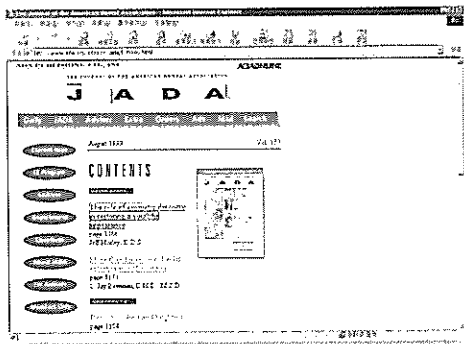
발표한 바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환자들이 전문의 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넓어진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 체계하에서는 전문의 치료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일차진료기구를 통하여 의료경영회사로부터 일단 허가를 받아야 지정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응급치료와 응급치료를 위한 입원비를 보험회사와 건강관리 경영회사가 지불해야 하며 환자가 보험회사나 의료경영회사를 상대로 법적 기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은 HMO Bill 혹은 환자들의 보호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Norwood -Dingell Bill은 지난 10월7일 많은 설전 끝에 미국 하원을 275대 151로 통과했고 곧 상원으로 이관되어 토론이 계속될 것이다.

스노덴트(SNODENT)에 대한 특별교육

ADA는 모든 회원들에게 스노덴트에 대하여 확실한 인식을 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직감하고 ADA회장은 미국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기동부대(task force)를 구성하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을 시작하였다. 기계문명의 급진적인 발달과 함께 전산망을 활용하는 회원들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새로 지정된 여러 가지 진료코드와 명칭을 수록한 내용을 SNODENT라고 한다.

이러한 이름의 근원은 치과진료를 위한 체계적인 명칭(SNODENT: Systematized Nomenclature of Dentistry)에서 시작되었다. 치과의료와 관련된 4,000가지 이상의 진단명칭이 기록된 것인데 여기에 기록된 진단명칭은 미국병리학사회(The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SNODENT는 치과혜택 프로그램 전문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치과 의사들이 환자들의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를 전산망에 올릴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산망을 통하여 치과의료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인 건강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ADA 회원들이 SNODENT를 활용하면 회원들의 치과진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를 ADA가 실시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ADA 회장 S. Timothy Rose 씨는 강조했다.



1999년 9월호 JADA는 ‘감염방지’, ‘핸드피스의 평가’ 및 ‘디지털 방사선사진과 시기행위의 가능성’을 표제기사로 다루고 있다. ‘HIV의 최근상황: 오보가 계속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JADA 주간인 Lawrence H. Meskin 교수는 HIV 감염에 대하여 일반대중들과 치과의를 비롯한 전문인들의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9월의 뉴스로서는 National Academy of Science에 발표된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이 달의 질문에 대한 회원들의 응답내용들을 분석하였다.

개원치과의를 위한 읽을거리로 ‘HIV-1 질병의 진행에 따른 면역학 비치는 바이러스의 표식자들: 치과치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종설과 ‘더욱 새롭고 오랫동안 작용하는 ‘마크로라이트’ 항생제의 치과치료를 위한 적용’이라는 임상약학과 간결한 총의치 제작법의 소개와 ‘후방구치의 컴퍼짓 내구력’과 ‘공기총을 이용하는 치마법 시술시 사용하는 예방기구의 임상적 활용가치’에 대한 연구 논문을 소개하였다.

매달 게재되는 정기 칼럼에서 Clinical Research Associates의 공동 창립자인 Gordon J Christensen 박사는 신제품을 평가하는 방법을 치과의를 위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미국 국립 치과 학 연구 소장인 Harold C. Slavkin 박사는 유전자의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컴퓨터의 활용을 통한 통신술의 급진적인 발전과 생명공학의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지난 세기의 중요한 연구업적을 요약하고 있다. ADA의 고문 변호사인 Peter M. Sfikas 박사는 내과 의사 Steven S. Farber가 AIDS와 HIV에 감염된 환자를 다룬 내용에 대한 아리조나주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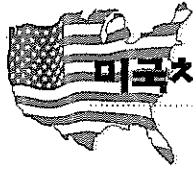
이달의 질문

현재 환자와 관련된 기록을 전자기록물로 보관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컴퓨터에 환자기록을 보관하십니까 아니면 지면을 활용하는 환자기록부만을 보관하고 계십니까?

JADA의 7월호에 게재된 이 달의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58%가 종이 서류와 컴퓨터를 병행하여 환자와 관련된 기록을 보존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 중 대다수가 환자의 재정관리 및 인적사항과 디지털 방사선 사진들을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으며 치료와 관련된 기록과 방사선사진과 치과기록을 종이 서류로 보관한다고 대답하였다. “고지서 발송을 위한 업무는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종이로 된 환자기록부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대답을 하고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 컴퓨터를 사용하는 각자의 기술정도, 보안, 기계에 대한 신빙성과 전적으로 전산화시킬 수 있는 올바른 소프트웨어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사항들을 지적하고 있다.

기록보관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회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사항에 대하여 ADA의 법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지문을 담당하고 있는 Michele Throne 변호사는 과거에는 치과 의사의 ‘친필’로 된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건이 각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치과 의사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의 치과 의사회에 해당 지역에서 환자기록보관과 관련된 법적인 요구조건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Throne 여사는 말했다. 동시에 해당된 지역의 부정의료보험 회사가 마련한 법적인 기준을 알아보도록 권고하고 있다. 두 종류의 기록을 동시에 보관하고 있는 회원들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환자들의 기록을 보관할 경우 특정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냈다. “장부와 특수 청구내용들을 처리하는 전국적인 표준을 마련하면 파일을 반복하고 처리과정에서 야기되는 혼돈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마련함으로써 필요한 기록물의 전달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환자진료기준을 확고하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몇몇 회원들은 말했다.

치과정보과학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DA 표준



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제품업자들이 통일된 경영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에 기준을 둔 구강건강기록에 대한 규격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컴퓨터에 기반을 둔 구강건강기록은 전반적인 환자의 의료기록을 마련하도록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고려하고 있다. 이 규격(안)은 지난 5월에 공증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반대중에게 공표하였다.

응답자의 40%는 환자기록부 용지만을 환자기록으로 보관한다고 했다. 이들 중의 10%는 가까운 장래에 컴퓨터를 활용하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실시해온 버릇을 변경시킨다는 일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어떤 회원들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환자기록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하면서 "지난 33년 동안 종이 장부를 보관해 오고 있는데 내 종이 장부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했다.

응답자 중의 한 명만이 컴퓨터만을 이용해서 환자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는 대답을 했다. 컴퓨터를 활용하는 ADA 회원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84년 ADA 회원을 상대로 한 실지조사에서 치과의사들의 11%만이 자기 치료실에 컴퓨터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1997년 ADA 회원들을 상대로 한 실지조사에서는 컴퓨터를 치과 치료실에 설치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이 79.5%로 증가하였다. 1997년의 실지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90.4%가 환자의 치료비를 관리하는데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하였고 86.3%는 보험청구에 활용하고 있으며 75.9%는 규격편지를 마련하는데 활용하고 있고 65.1%는 치료실의 경비기록을 보관하는데 활용한다고 했다. 44.66%만이 환자와 관련된 치료기록을 위하여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했고 32.1%는 진단과 치료경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하이스피드 치과용 핸드피스 성능

Texas주 Brooks 미공군 치의학연구소에 근무중인 치과의사들인 Daniel L. Leonard 대령과 David G. Charlton 대령은 '하이스피드 치과용 핸드피스의 성능'이라는 연구논문을 JADA 9월호에 발표하였다. 6가지 종류의 치과용 핸드피스를 입안의 조건과 비슷한 환경과 속도과정을 1,000번 반복해서 실시한 다음, 수명, 힘, 터빈

의 속도, 화이버옵틱의 투사력, 구심력, 소음정도, 척(chuck)의 능력, 가시각도, 치아 저작면 간의 통과도 및 냉각수의 분산양상들의 기초조사 결과와 250, 500, 750 및 1,000회 반복 사용후, 측정검사하여 그 결과들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측정된 여러 가지 변수의 기초값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약 1년간을 사용한 경우와 비슷한 500회 반복 처리 후에도 6가지 핸드피스간에 통계적인 유의차를 나타내지 않았다.

HIV-1 질병의 면역학적인 표식자들과 바이러스 표식자 : 치과의학과 연관

미국의 North Carolina주 Chapel Hill에 위치한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치과대학 치과 생태 환경학(Dental Ecology)과에 근무하고 있는 Lauren L. Patton 부교수와 Diane C. Shugars 조교수는 'HIV-1 질병의 면역학적인 표식자들과 바이러스 표식자 : 치과의학과 연관'이라는 종설을 JADA 9월호에 마련하였다. 1981년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들을 11명 처음으로 보고한 바 있다. 현재 미국에는 AIDS환자로 판명된 사람들이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HIV-1(Human Immunodeficiency Virus type 1)에 감염된 사람들의 수는 이 수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치과진료실을 방문하는 1,000명의 환자들중에 한명 내지 두명이 HIV-1에 감염된 사람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지난 10여년동안 HIV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약제가 개발되어 AIDS환자들의 사망률은 점점 감소되고 있지만 아직 완전한 치료법은 없는 형편에 있다.

현재 HIV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중인 치료효과는 CD4+ 림파세포수와 혈청내에 나타나는 바이러스의 양을 판단하여 결정한다. 여러 가지 종류의 고성능 항 레트로 바이러스 약제들(antiretrovirus drugs)을 병합한 치료법을 통하여 혈청에 나타나는 바이러스 양을 격감시키고 있다. 이러한 약제들은 바이러스 단백질 생성을 억제하는 효소를 사용하는데 심한 부작용을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다. CD4+ 림파세포수가 낮은 환자인 경우에는 심한 파괴성인 치주조직감염과 HIV로 인한 구강내 증상을 나타낸다.

디지털 방사선사진을 사용하는 사기의 가능성

캐나다의 British Columbia에 소재한 Vancouver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 Andrew Tsang 씨와 British Columbia 대학교 법치학부의 치과법의 학자인 David Sweet 박사, 및 Toronto 대학교 Princess Margaret 종합병원의 악안면 방사선 전문의사이며 치과법의학자인 Robert E. Wood 박사는 “디지털 방사선사진을 사용하는 사기의 가능성”이라는 연구논문을 JADA 9월호에 발표하였다. 이들 3명의 연구자들은 무작위 추출법에 의하여 치과개원의사들로부터 구한 3장의 치과방사선 사진을 디지털 방사선 이미지로 변형시킨 후 디지털 방사선 이미지에 치과치료와 치아 경조직의 병변을 컴퓨터 상에서 조작하였다. 조작된 병변이 있는 치과방사선 사진을 보험회사에 우송하여 방사선 이미지에 나타난 치과치료를 위한 진료를 위하여 보험 청구에 대한 사전허가를 요청하였다. 무작위 선정한 3가지 경우의 조작된 치과질병에 대한 보험회사는 디지털 방사선 사진을 통한 병변을 검사하고 모두 사전허가를 했다. 이런 결과를 분석하면서 원래의 지디털 방사선 사진을 변형시켰을 경우 판독 시에 특별한 표식을 하여 사기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치과개원의사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유치와 혼합 치열간격에 대한 문제점의 관리

West Virginia 대학교 치과대학의 교정과 과장인 Peter Ngan 교수와 New Mexico의 Albuquerque에서 치과개원을 하고 있는 Randy G. Alkire 씨와 Ohio 대학교 치과대학 학장인 Henry Fields Jr.는 공동연구를 통하여 소아치과 환자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치아와 치아사이의 간격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종설을 JADA 9월호에 발표하였다. 제3차 미국인들을 상대로 한 전국 건강 및 영양실태조사결과에서 치과개원의사들에게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사항이 치아와 치아의 공간에 대한 문제점들이라고 전제하고 미국의 치과개원의사들이 앞으로 일반 치과의사들과 전문 치과의사들간에 여러 가지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의 관리에 관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 검토했다.

치간의 간격에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을 확실하게 이해할 경우, 적절한 시기에 임상적인 관리를 철저하게 실시한다면 임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치간의 간격이 4.5mm이하일 경우 간단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5 내지 9 mm 정도의 크라우딩(crowding)일 경우에는 정밀한 진단과 치료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모든 치아를 잘 정렬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미적인 조건과 구강내의 연조직의 건강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치아를 발거하여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해야 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52개의 참고문헌을 인용하면서 특별한 임상환자를 상대로 한 성공사례를 6개의 원색 사진을 통하여 임상기법을 소개하였다.

더욱 오랫동안 약리효과를 내는 항생제 “마크로라이드(Macrolide)”의 치과치료 적용방안

Pittsburgh 대학교 치과대학의 공중보건치과 약리학 담당 교수인 Paul A. Moore 박사는 구강 내 감염을 치료할 때 치과 개원의사들은 페니실린에 알러지 반응을 하는 환자들을 위하여 마크로라이드 항생제인 에리스로마이신을 사용해보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리스로마이신과 신제품 마크로라이드의 약리작용과 세균성 심내염과 안면구강의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12개의 관련 연구논문들을 인용하면서 문헌적인 고찰을 통하여 현재 미국 시장에서 팔고 있는 Azithromycin, Clarithromycin과 Dirithromycin이 임상적으로 좋은 치료효과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위장계통에 부작용이 없이 Erythromycin 보다 오랫동안 항생효과를 나타내며 Azithromycin과 Dirithromycine을 동시에 상용해도 Erythromycin을 복용할 경우에 일어나는 간장의 부작용이 없다고 했다.

“이러한 새로운 마크로라이드항생제는 하루에 2회 사용해서 Erythrocin보다 부작용 없이 아주 좋은 임상효과를 나타내지만 이러한 항생제는 약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복용하기를 꺼려하고 있다”고 Moore 박사는 언급하고 있다.